지역 소식통

김제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김제시가 5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여름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지원금은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0,000원, 3인 가구 15,000원, 4인 이상가구 15,000원이며, 동절기는 1인 가구 89,500원, 2인 가구 126,500원, 3인 가구 155,500원, 4인 이상가구는 176,000원이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차감)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 부처님 오신 날 범죄예방 활동 추진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9일까지 관내 전통사찰 등에 대해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범죄예방활동 기간 동안 관내 모든 사찰을 대상으로 불전함 및 문화재 보관장소 등 사찰 내·외 취약개소, CCTV 등 방범시설 이상 유무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취약점 있는 중·대형 사찰에 대해서는 행사 직전 및 당일 순찰차 지정해 거점근무 등 사찰 내 소란행위, 기물손괴 및 문화재 도난 등 사건·사고를 선제 예방하고, 신속대응 태세를 강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수용 인원 초과, 마스크 미착용 등 자체 방역망이 미흡한 사찰에 대한 계도조치 등 방역지원을 병행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코팅코리아, 환경부 장관상 수상

물종합기술연찬회서 물관리 우수기술 부문… PFP 수도관으로 강하고 녹물 없어 '호평'

김제 대동농공단지에 위치한 수도관 전문 생산기업 ㈜코팅코리아 최규호 대표이사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개최된 '2021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및 우수기자재전시회'에서 물관리 우수기술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서 코팅코리아는 '강관의 내구성과 폴리에틸렌의 위생성을 접목시킨 폴리에틸렌 내·외부 코팅 수도관 개발 및 적용사례'를 발표함과 동시에, 물관리 우수사례 및 신기술 실용화를 도모한 공로가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물종합기술연찬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국회 환경포럼, 워터저널 등이 공동 주최하여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고, 물 및 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물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우수기술 적용사례 및 공통 현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 코팅코리아의 최규호 대표이사는 PFP(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수도관은 분리형 소켓연결 방식을 코팅강관에 구현시킨 세계 최초의 수도관으로, 강관(Steel Pipe)의 내구성과 폴리에틸렌(PE)의 물에 대한 반응성(녹 발생)을 차단시킴으로 위생성을 동시에 구비한 제품임을 소개하며, 더 나아가 수도관의 미래 선도사업의 하나로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수도관의 자가 진단 및 상태감시 센서 결합형 스마트파이프 개발'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팅코리아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PFP 수도관의 내면의 코팅방식으로, 기존의 수도관 내면을 에폭시라는 물질로 얇게 페인팅하는 방식이 아닌 PFP 내면을 위생성이 검증된 폴리에틸렌으로 1mm 이상 두껍게 코팅 처리하는 것으로 국내 유일한 수도관 내면 코팅처리 공법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도 코팅코리아는 자사 생산제품인 구경 15mm에서부터 1,000mm 까지 PFP 수도관을 크기별로 단면을 잘라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기술력을 자랑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코팅코리아에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코팅코리아 같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들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브랜드 네이밍 슬로건' 공모전

김제시, 내달 3일까지 홈페이지 팝업창 등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대·내외적 대표 이미지 확립을 위한 BI(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김제시의 매력과 가치, 비전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참신한 도시브랜드 네이밍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김제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출품작을 선정 할 예정이다.

이번 네이밍 공모는 6월 3일까지 김제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공모 참여 사이트(http://naver.me/Gcjlt578)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동일한 네이밍이 2건 이상인 경우 제출 순서가 빠른 응모작이 우선 권한을 갖는다.

접수된 작품은 1~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200만원) 1명, 우수상(100만원) 1명, 장려상(20만원) 5명에게 상금이 수여되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상 1만원(100명)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의 정체성과 특성을 담는 BI 네이밍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BI가 개발되면 지역홍보, 관광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미용실서 군 장병 이발비용 낮췄다

군·미용협회, 업무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 기대

군 장병들이 완주군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대한미용사회완주군지부, 육군제9585여단·제35동원지원단·72통신지원대대와 장병들의 이발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병 복지향상을 위해 월 1만원의 이발비를 개인 봉급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장병들이 외출·외박시 협약된 관내 지역 미용업체에서 이발을 할 경우 6000원으로 가격으로 낮출 수 있도록 미용업중앙회완주지부와 협의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특히, 육군제9585여단을 비롯한 군부대 장병들의 인원이 600여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건강수명 100세 시대 위한 맞춤 운동 사업 인원 4명 선발

김제시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추가로 선정돼 국비포함 6천여만원을 확보하여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기초체력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 운동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될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 운동 사업의 선발인원은 4명이며 신청자격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 맞춤 운동 사업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 아동층에서 노인층에 이르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근육과 성장판을 자극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문화의 집, 민화 프로그램 진행

문체부 지원사업 선정… 27일부터 민화체험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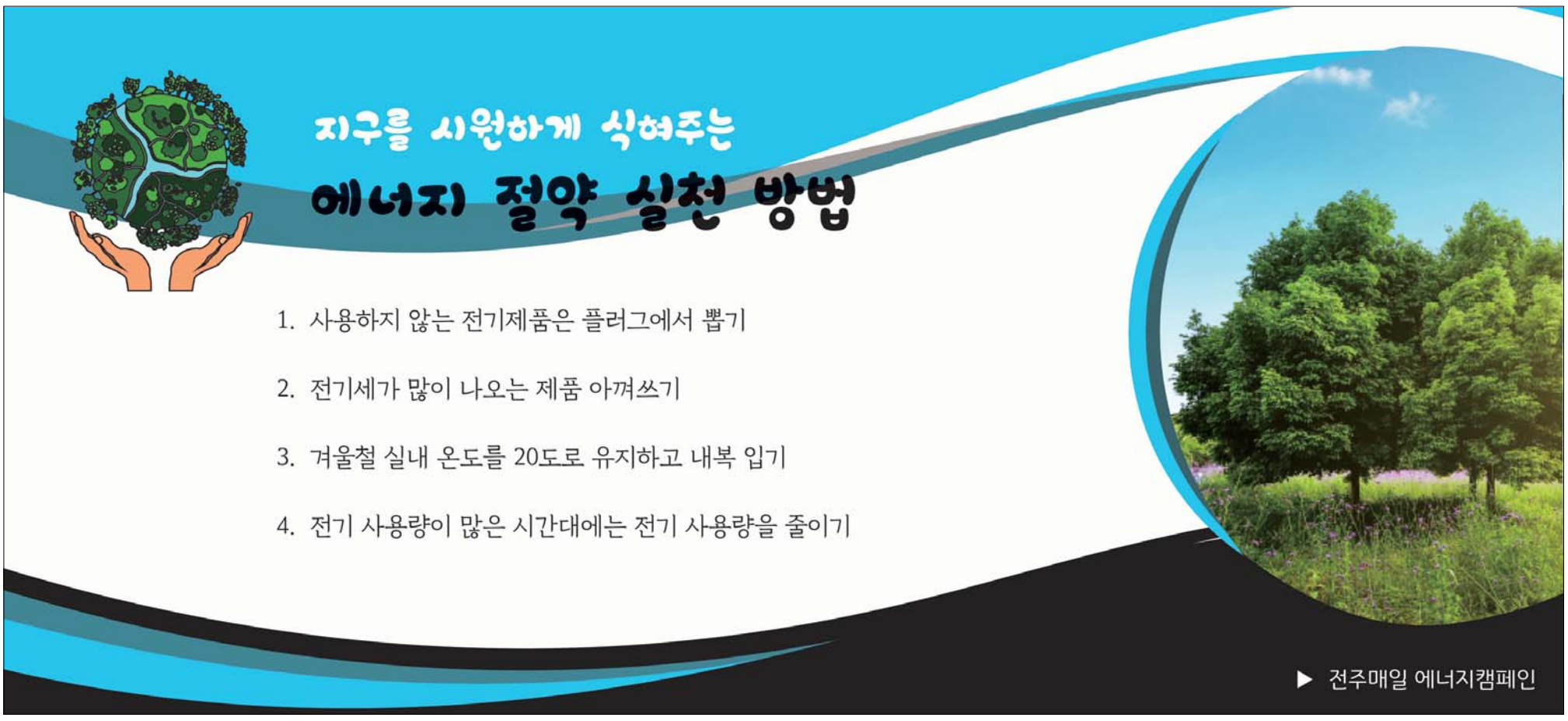
완주문화의집 삼례생활문화센터(센터장 길미경)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2021 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 민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 플랫폼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생활을 즐기고, 생활문화센터를 주민들과 함께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민화, 완주(完走)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민화, 완주(完走)하다는 민화를 도예·목공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접목시켜 색다른 체험을 해보고, 화장실 출입문과 삼례생활문화센터 명패에 예쁜 민화를 담아보기도 하는 등 함께 공간을 구성해나간다.

약 6개월 동안 주민들이 함께 만나며 고민을 나누고 일상을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강사진과 참여 주민을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향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은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이전부터 주민의 삶과 함께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번에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색다른 체험도 하며 그 안에서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